미술관에는 '종교의 벽'이 없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전'
불일미술관 (12월 8~15일)

오원배 씨의 '적적(寂寂)'(위).
청동으로 만든 김영원 씨의 '정숙(靜寂)'(아래).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은 기독교계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불교계 작가와 가톨릭계 작가를 초청한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 展'을 갖는다. 전시 기간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사간동 법련사미술관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가톨릭계가 서울 중림동 가톨릭 회랑에서 한달간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전'을 개최한데 대한 불교계의 일종의 '답례전' 형식이다.

이번 전시회엔 이름만 들어도 그 명성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대표적 작가 23명이 초청됐다. 불교계에선 강경구, 송수련, 송영방, 전영화, 오경환, 오원배, 이만익, 전성우, 김영원, 류종민, 조승환씨 등 11명이 출품했다.

대부분 지난해에 참가해 낯이 익지만 강경구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강 교수는 오원배 교수(동국대 미술학부), 이만익 화백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술상인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관록있는 미술가다.

가톨릭쪽에서는 이종상, 김형구, 문학진, 변진의, 송경, 이광미, 이동표, 조영동, 조재구, 최의순, 최종태, 성옥희 등 12명이 나온다. 60세 이상의 원로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제 1회 베이징 비엔날레 초대작가인 이종상 씨(상명대 석좌교수)와 국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인 김형구 씨는 국내 정상급 화가로 명성이 높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작품마다 작가들의 종교적 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은 다섯 작품 정도.

불교계에서는 장지에 수묵 담채로 연화세계를 담백하게 그린 송영방씨의 '연화세계'와 종이위에 혼합재료를 사용해 꽃을 부처님을 표현한 오원배 교수의 '적적(寂寂)', 청동으로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을 조각한 김영원 씨의 '정적(靜寂)' 등이 있다. 또한 가톨릭계에서는 동판에 유약을 발라 원형상을 표현한 이종상 교수의 '원형상', 칠흑같은 밤에 뜬 달빛을 오일을 사용해 그린 김형구씨의 '성야(聖夜)' 등이 벽에 걸린다.

이외에도 캔바스에 오일로 일곱 가족을 희화적으로 그린 이동표씨의 '우리시대의 가족상'은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온다. 또한 강경구씨의 '여여문(如如門)'에서는 선(禪)적인 향기가 물씬 풍긴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이질적인 문화 혹은 다른 종교와의 만남에서도 훌륭한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며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이라든가, 인도의 간다라, 중국의 당나라 문화 등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그것도 이질적인 문화를 포용해 관용의 미학으로 토해낸 걸작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미술을 통해 이웃 종교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데 대해 이번 전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두 종교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가톨릭계 축하해준 '답례展'

대표 작가 23명 출품 '서로 화합 다지는 계기'

이종상 씨의 '원형상'(왼쪽)과 최종태 씨의 '서있는 사람'(오른쪽).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수덕사 근역성보관 (12월 12일 까지)

부처님 뱃속에 최고의 문화가 …

복장유물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은 보는 이를 탄복케 한다.

전시 13일 째를 맞은 11월 23일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관장 정암)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佛腹藏) 특별전' 현장. 벌써 7천여 명이 다녀갔다는 특별전에는 이날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복장이란 불 · 보살상 등 존상 내부에 봉안됨으로써 존상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물건들이다. 고려시대에는 조형물, 복식, 직물, 사경, 전적, 다라니 등을 조선시대에는 후령통(오곡 · 오향 · 오약 · 발원문 등을 넣는 통) 안의 오보병을 위주로 간략하게 넣었다. 이번 전시는 일반인의 범접이 쉽지 않았던 복장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복장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한 첫 특별전인데다, 불복장에 담긴 문화적 측면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별전은 문수사 금동아미타불,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보물 제1381호), 기림사 비로자나삼존불상(보물 제958호),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80호) 등 고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상 안에 있던 기림사비로자나불복장전적(보물 제959호), 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보물 제1095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권8>(보물 제740호)을 비롯한 전적류와 직물 · 복식, 후령통 등의 주요 복장 유물들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직물 · 복식류. 통상 가장 귀한 물건을 복장으로 봉안하기 때문에 복장 유물은 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번 전시 직물 · 복식류는 그 같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작들.

작은 직물 조각부터 황색보자기에 이르기까지 전시된 다양한 직물 가운데 단연 압권은 고려시대 금박 중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담청색천화봉황문지인자황수파어용문라(淡靑色穿花鳳凰紋地印紫黃水波魚龍紋羅)'. 청색으로 투명하게 비치는 꽃과 봉황 문양을 배경으로 물결무늬와 어용(용의 머리와 물고기 꼬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을 금박으로 그려 넣은 직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박의 재료로 가짜 금인 자황을 사용했다는 점. 유황과 비소의 화합물로 만든 자황에 대한 문헌 기록은 있었으나 실제 유물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현존하는 고려복식 9점이 전시된 것도 드문 일이다.

자황을 사용해 금박 무늬를 새긴 '담청색천화봉황문지인자황수파어용문라'. 고려시대 뛰어난 직물 제작 기술을 알 수 있는 수작이다.

폭이 13미터나 돼 한번도 펼쳐져 전시돼본 적이 없다는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 제8>의 펼쳐진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를 더 한다.

특별전의 또 하나의 자랑은 도록. 수덕사근역성보관은 일반 도록 외에 <불복장 직물문양집>도 제작했다. 전시된 직물의 문양을 일러스트 전문가가 작업, 그래픽화한 것으로 전통 문양의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근역성보관장 정암 스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복장이 갖는 성스러움을 손상치 않으면서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며 "특별전을 계기로 복장 유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수덕사= 박익순 기자**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